

50번 고속 도로 환상 여행

• 현실과 환상을 버무린 진짜 마법 같은 여행 그림책 •



대상 학년

초등 전학년

교과 연계

- 1학년 1학기 통합 <탐험>
- 1학년 2학기 통합 <상상>, <이야기>
- 2학년 1학기 국어 3. 겪은 일을 나타내요
- 3학년 1학기 국어 독서 단원 :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눠요
- 5학년 1학기 국어 7. 기행문을 써요

※ 이 독서 활동지는 진선출판사 홈페이지 및 블로그, 포스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현직 선생님의 추천 이야기

가족 여행을 떠나는 아이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여행이 어땠는지 물으면 가는 길이 힘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는 길에 무엇을 했냐고 물으면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노래를 듣거나 영상을 보았다고 해요. 그마저도 부모님이 못하게 하거나 배터리가 없으면 잤다고 하고요. 여행 가는 길이 지루할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폰도 없고 고속 도로도 많지 않던 시절의 어렸던 저는 여행길에 창밖을 보면 ‘저건 뭘까?’ 하고 늘 궁금해 했어요. ‘갑자기 고라니가 나타나거나 멧돼지가 뛰어들면 어떻게 하지?’, ‘터널 속에 갇히면 어디로 도망가야 할까?’ 그런 상상의 나래도 펼쳤지요. 여행지에 도착해서 뿐만 아니라 여행을 오고 가는 길 역시 내내 즐거웠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인지 ‘이런 즐거움을 우리 아이들도 알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종종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50번 고속 도로 환상 여행』은 고속 도로를 따라 떠나는 여행 동안 마주하는 것들에 상상력이 더해져 다양한 환상이 살아 숨쉬는, 그래서 한밤중의 여행이지만 그 누구도 졸릴 새가 없는 두근두근한 여행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책을 아이들과 함께 읽고 여행을 떠나 보면 어떨까요? 책 속 내용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또 어떤 것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는지 살펴보세요. 여행길에서 보고 느낀 것으로 다양한 환상 이야기도 만들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차의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가 여행이 되는 멋진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최유라(괴산 감물초등학교 교사)

아이의 마음이 궁금해 교실에서 그림책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 저서 『그림책으로 마주하는 아이 마음』
전국 교육청 ‘그림책 활용 교육’ 직무연수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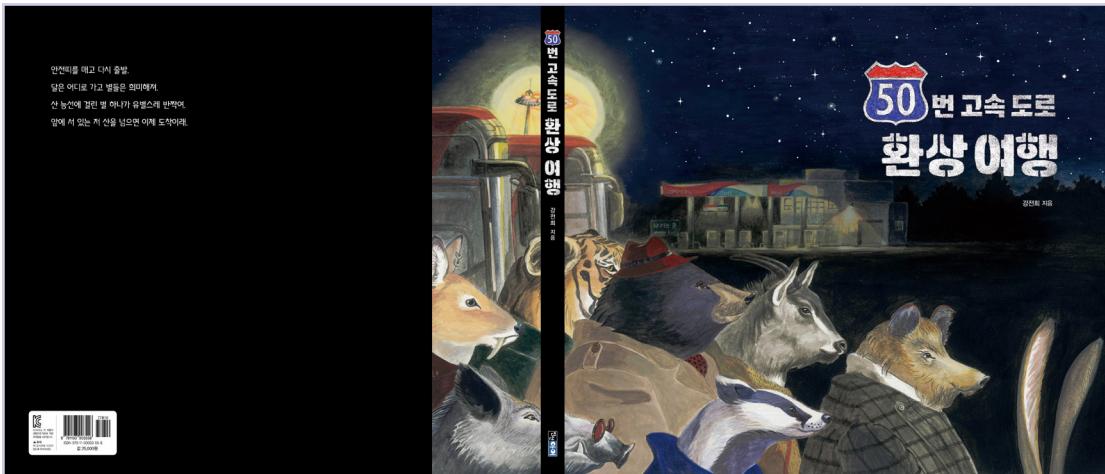
책을 읽기 전에

표지를 살펴보며 읽을 준비를 해요



책의 표지를 살펴보며 질문에 답해 봅시다.

표지를 펼쳐 살펴보세요!



-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 표지의 그림을 살펴봅시다. 무엇을 발견할 수 있나요? (등장인물, 장소, 시간...)

제목과 그림을 바탕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상상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봅시다.

이 책은 ‘고속 도로 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 본 적이 있나요?
관련된 경험을 떠올려 써 봅시다.

언제 여행을 떠났나요?

누구와 함께 떠났나요?

어디로 떠났나요?

가는 길에 무엇을 했나요?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이제 준비가 되었어요. 책을 읽어 볼까요?”



책을 읽으면서 함께

책을 읽으며 여행을 정리해 봅시다



이야기를 읽으며 순서에 따라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집에서 출발



고속 도로로!
통행권을 뽑고 ()를
빠져나옴

고속 도로 위에서 본 것



휴게소에서 본 것



터널 안에서 본 것

요금을 내고 톨게이트를 지나
고속 도로 밖으로 빠져나옴



도착한 곳은?

주인공은 무엇을 하기 위해 여행을 떠난 것인가요?



책을 읽으면서 함께

숨은그림찾기!



이번에는 그림에 집중해서 다시 책을 읽어 볼게요. 《50번 고속 도로 환상 여행》은 '환상 여행'이라는 이름처럼 그림 곳곳에 환상 같은 그림이 숨겨져 있어요. 문제를 풀며 그림을 다시 살펴봅시다.

문제	정답
집을 떠나 고속 도로로 진입할 때에 통과한 톤게이트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 톤게이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사실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무슨 동물인가요?	
고속 도로에서 처음 마주한 것은 드문드문 보이던 집과 많은 차였어요. 그리고 커다란 전깃줄로 이어진 '송전탑'도 있어요. 그런데 이 송전탑의 모습이 이렇게 보였나 봐요. 어떻게 그려져 있나요? (힌트 : 하나의 송전탑만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급하게 앞질러 가는 트럭 뒤에는 표정이 그려져 있어요. 어떤 표정인지 그림으로 그려 볼까요?	
산허리를 돌아 만난 야간열차. 그 야간열차를 보고 이 동물을 떠올렸나 봐요. 터널을 빠져나오는 야간열차를 어떤 동물로 표현했나요?	
구미호와 드라큘라의 결혼식 장면도 기억이 나요. 이 장면에서 주인공의 차는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그 차 옆을 지나는 트럭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마지막 휴게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고속 도로의 끝에 통과한 톤게이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혹시 이것 말고도 여러분이 찾은 숨은 그림이 있나요?
내가 찾은 그림들이 무엇인지 써 봅시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문제를 내 볼까요?

Tip. 50번 고속 도로는 '영동 고속 도로'라는 실제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고속 도로예요.

인터넷에 '50번 고속 도로' 또는 '영동 고속 도로'를 검색하면 어디에서 어디로 이어지는 고속 도로인지 알 수 있어요.



책을 읽고 나서

차창 밖을 보며, (1) 창밖에는 무엇이 있나?



여러분은 자동차 여행을 갈 때 자동차 안에서 무엇을 하나요? 휴대폰이나 태블릿 하기? 쿨쿨 잠자기? 아니면 짜증 부리기? 그건 아마도 여행지에 도착해서부터가 여행이라고 생각해서 일 거예요. 가는 길이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죠. 이 책에서는 집을 떠나 차가 출발하는 순간부터를 여행으로 만드는 법을 알려 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 볼까요?

내가 도로 위에서 차창 밖으로 본 것들

Tip. 그림책 《50번 고속 도로 환상여행》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아요. 이야기 속 주인공이 봤던 장면이 진짜 창밖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요.



책을 읽고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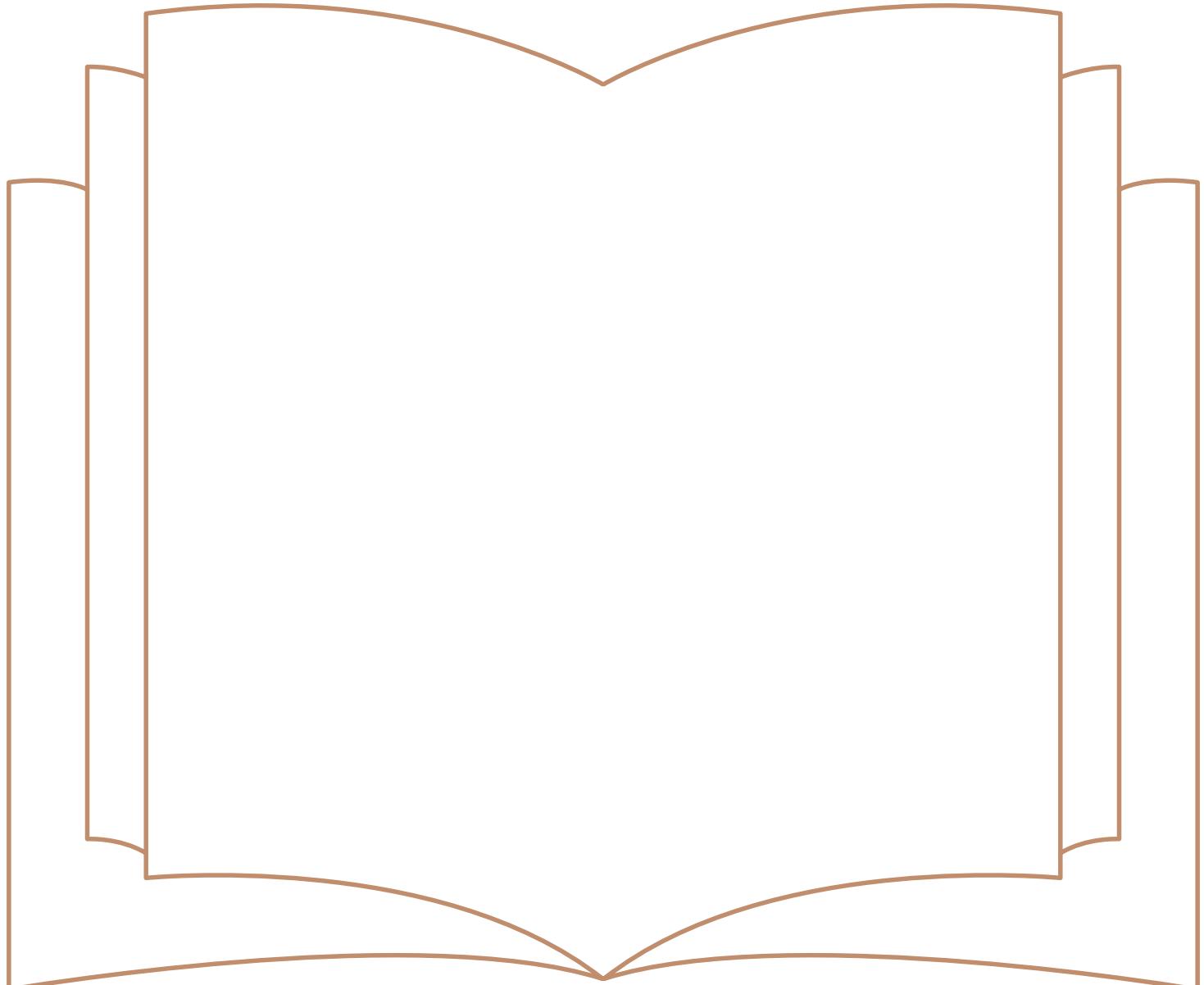
차창 밖을 보며, (2) 창밖 세상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창밖으로 관찰한 것 중 몇 가지를 골라 이야기를 만들어 봐요.

저건 왜 저기 있을까? 저기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 사실 여기는 이런 곳일지도 몰라. 이런 상상을 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길가에 떨어진 신발을 보면서 도대체 저 신발은 왜 저기에 떨어져 있을까? 남매끼리 싸우다 오빠의 신발을 창밖으로 던져 버리고 혼난 건 아닐까? 아니면 여행 중 잠자는 아이들의 신발을 몰래 가져가는 도로의 요정이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요.

여러분도 한번 관찰했던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환상 여행' 이야기를 만들어 봐요. 글이 어렵다면 그림으로 그려도 좋아요.



Tip. 함께 여행을 떠나는 모두가 다 같이 차창 밖 풍경을 감상하며 이야기를 만들어 봐요.

그럼 훨씬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이야기도 풍성해질 거예요.